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5.14

금융감독원은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동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2023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2023.05.11

'23.4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 원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Delta 1.5\%$ 로 감소폭이 소폭 확대(3월 $\Delta 1.4\% \rightarrow$ 4월 $\Delta 1.5\%$)되었음.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하였음.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0.1조 원)·여전사(+0.3조 원)·저축은행(+0.02조 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Delta 2.6$ 조 원) 위주로 $\Delta 2.2$ 조 원 감소하였음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보건복지부

2023.05.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됨.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연금수리위원회 출범,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023.05.12

보건복지부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연금수리위원회는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음.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검증 및 외부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를 위해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계모형의 적정성 및 주요변수 전망 방법론 등을 살펴볼 계획임

손해보험협회, 어르신 맞춤 케어 서비스 실시

손해보험협회

2023.05.12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손해보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손해보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상담역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23.05.10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고자 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2023.05.11

현행법의 입증책임 완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실효성이 미미한바,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둌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3.05.12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안내가 부족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